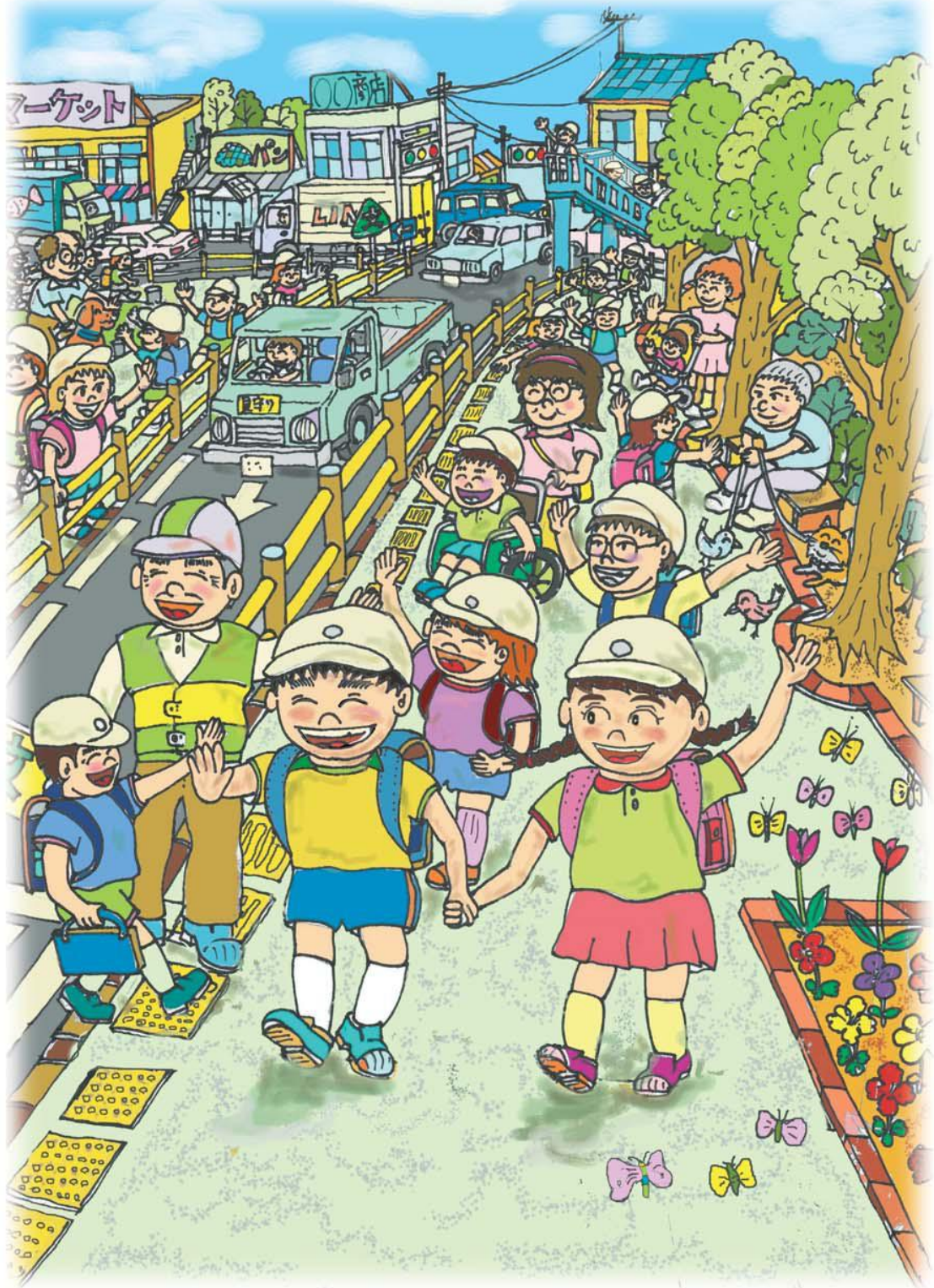


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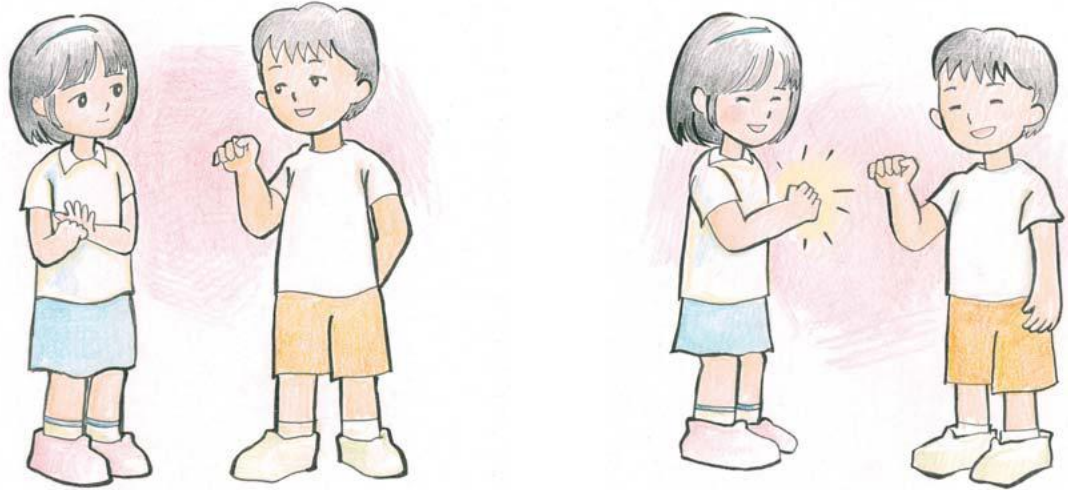
1 · 2년

목 차

| | | |
|---|-------------------|----|
| ① | 즐겁게 놀자. | 1 |
| ② | 왜 그래? | 2 |
| ③ | 즐거운 소풍 | 4 |
| ④ | 꿈만 같아요. | 6 |
| ⑤ | 왜 그럴까? | 8 |
| ⑥ | 혼자 집 지켜주기 | 10 |
| ⑦ | (행복을 나눌 수 있게) | 12 |
| ⑧ | 같이 놀자. | 14 |
| ⑨ | 하루카의 해바라기 | 16 |
| ⑩ | 교통안전요원 할아버지 · 할머니 | 18 |

즐겁게 놀자

사이좋게 가위바위보



의자뺏기 게임



왜 그래?

「안녕? 」

「..... 」

항상 커다란 소리로

인사를 하는 유키.

오늘은 웬 일인지 기운이 없다.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
「솔개뛰기가 안 돼.
어제 혼자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라며 울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같이 연습하자.」
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즐거운 소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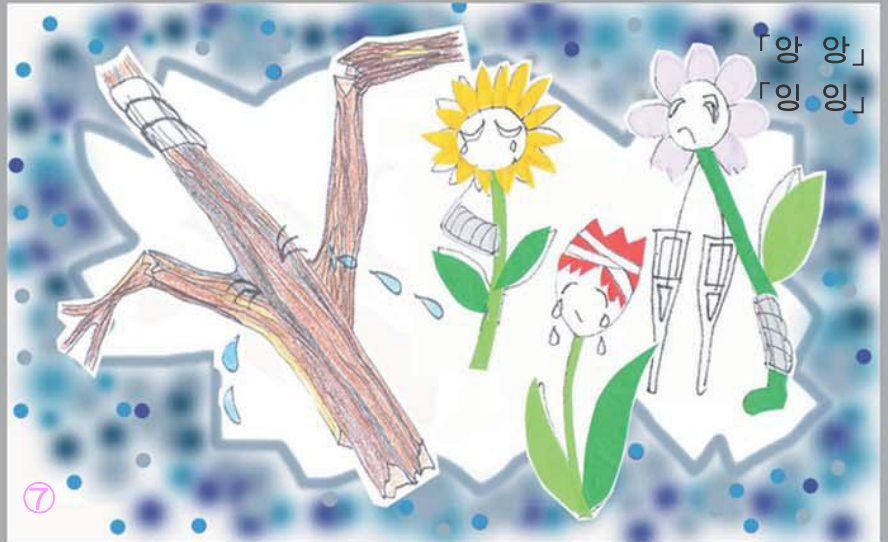




8 「더러워서 싫어.」



9 「와--」



「앙 앙」
「잉 잉」

7



「미안합니다.」

11



「아, 꿈이었네.」

10



「자, 모이세요.」

13



12

꿈만 같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잠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눈물을 흘리고

물뿌리개의 물로

얼굴에 물을 뿌린 것뿐인데.

오늘은 꿈 같아요.



두근두근 거리며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같이 침범침범하고 있는데

잠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숨을 한가득 들이마시고
머리꼭대기까지 물에 들어가 보았다.

마이가
「대단하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신고가 브이사인을 해 주었어요.
저도 브이사인을 했어요.

선생님 꿈만 같아요.





왜 그럴까?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제 옷을 본 할아버지께서
「여자아이답게 양전히
행동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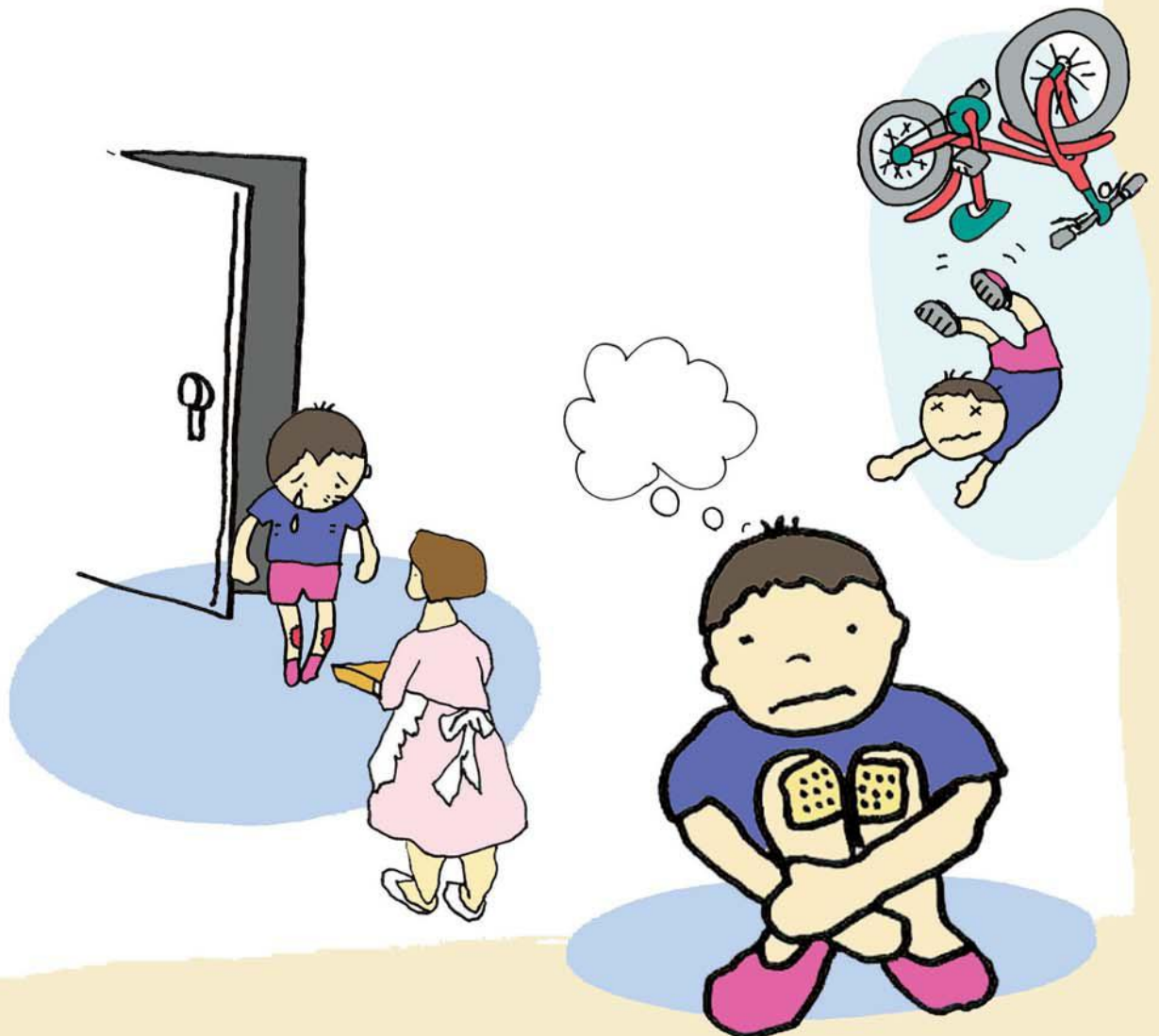
왜, 항상
「여자아이는 양전히」라고
말씀하실까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굴렀어요.
아파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남자아이가, 좀 더 강해져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자아이는 항상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혼자 집 지켜주기

저는 가끔
혼자 저녁에 집을 지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가셔서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거나 합니다.
9 시나 10 시까지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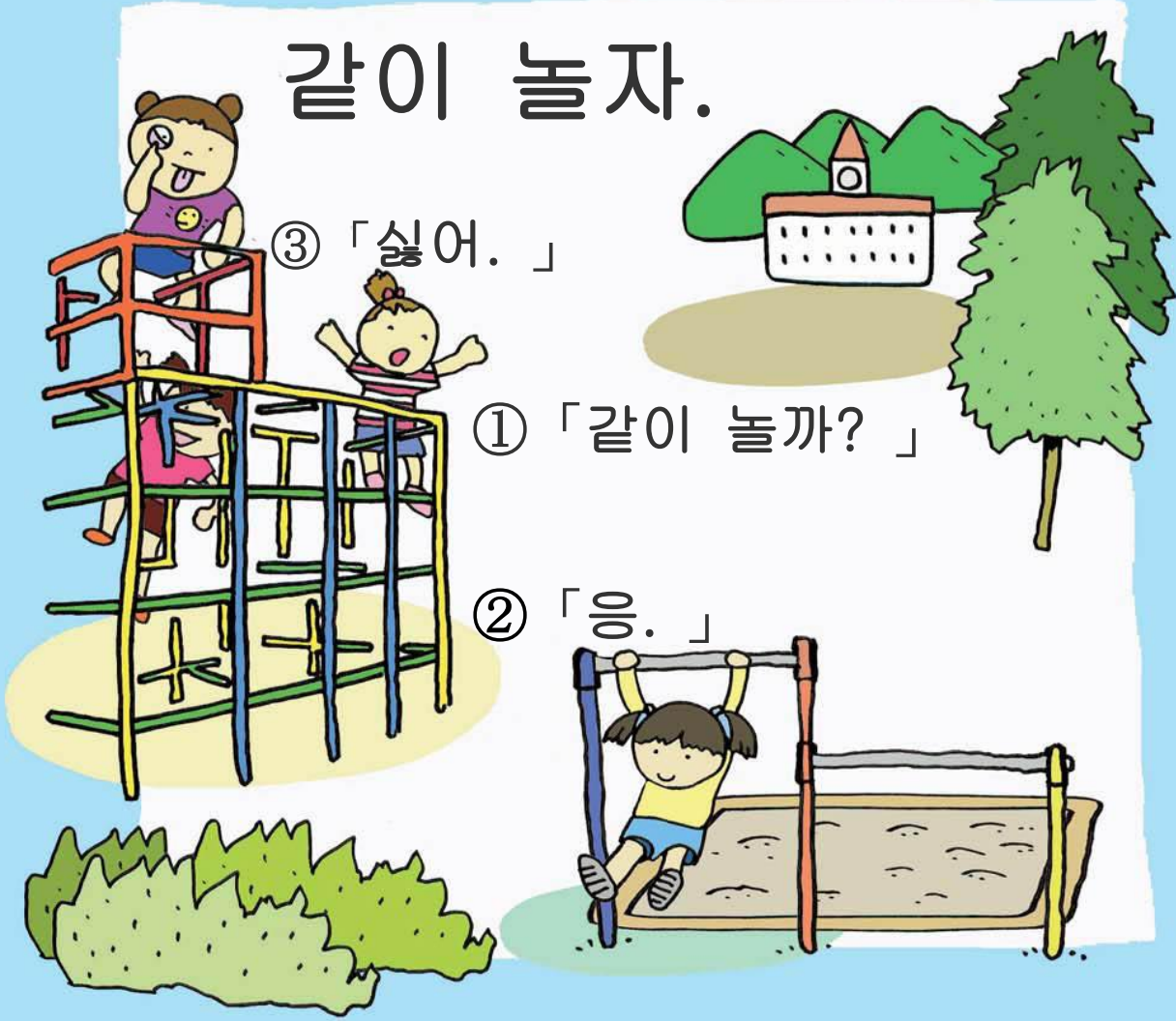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즐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어납니다.
지각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이 발표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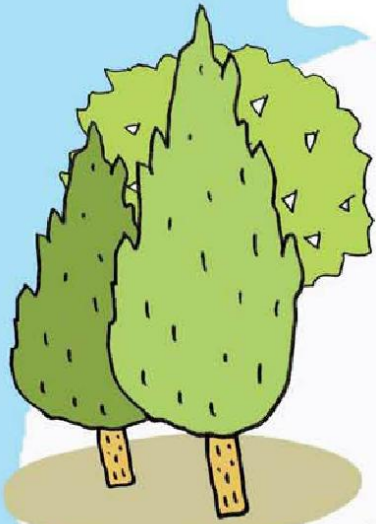


같이 놀자.



다음날

「같이 놀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카의 해라바기

여러분은 「하루카의 해바라기」를 알고 있나요?
고베의 거리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가토 하루카는
지진으로 부서진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해 여름, 공터가 된 하루카네 집의 정원에
많은 해바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 해바라기는 하루카가
귀여워하던 앵무새에게 주던 씨가
지진으로 흩날려 싹을 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카가 해바라기가 되어 돌아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카의 가족과 거리의 사람들은
 그 씨를 소중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거리의 여기저기에 씨를 뿌려
 많은 해바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리주민에게
 「하루카의 해바라기」가 격려해준 것 입니

그때부터 「하루카의 해바라기」는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의
 재해가 일어난 곳에도 보내져
 힘차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요원 할아버지 · 할머니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

「잘 갔다 왔니?」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
교통 안전 요원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매일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느날, 종례전에 저는 단짝인 겐과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아래를 본 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잘 갔다왔니?」

야마가와씨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하구나.」

다나카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겐에게서 전화가 와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내일 같이 놀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뻛고, 가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야마가와씨의 싱글빙글 웃던 얼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 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하교길에 언제나처럼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가
싱글빙글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 갔다왔니?」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였습니다.

저는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웠어요.」

라고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